

## 제5장 노동 및 교육개혁

- ▶ 국제투명성 연구소의 체감부패 평가
- ▶ 총명한 사람 만드는 노동 및 교육개혁

## 국제 투명성 연구소의 체감부패 평가

- 끊임없는 사정과 처벌 감사와 고발, 시민감시와 규제완화 그러나 시민과 기업인들이 느끼는 공직자들의 부패연루 부정은 「문민의 정부」를 지나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 베를린에 소재하는 국제 투명성 연구소(TI)가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해 오고있는 체감 부패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한국의 국가부패 수준은 1995년에 세계 41개국 중 27위, 1996년 54개국 중 27위, 1997년 52개국 중 34위, 1998년 85개국 중 43위에 이어 올해에는 99개국 중 52위로 평가받고 있다.
  - 관료들의 힘이 세어지고 정치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경제는 뇌물, 부정,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세계에서 공직자(관료와 정치가)가 가장 깨끗한 나라는 덴마크이고 청렴 톱10은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캐나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이다.
  - 1999년 10월26일에 이들과 함께 발표된 세계 99개 국가가운데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평가하는 나라로 가장 부패한 나라 톱10에는 카메룬,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탄자니아, 유고슬라비아, 파라과이, 케냐가 포함되어있어 역시 못사는 이유가 관료들의 부패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이들은 뇌물을 받는 면에서 본 체감 부패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TI가 발표한 뇌물 공여지수(BPI)는 세계 19대 수출 국가들에 대해 세계 34개국에서 국제 갤럽조사연구소가 서베이한 수입국 공직자(관료, 정치가)에게 뇌물을 주려는 사업 부패 관행을 나타낸다. 중국(홍콩포함), 한국, 대만, 이탈리아, 말레이시아의 수출업자들은 뇌물을 이용해 수출을 하려는 톱5인 반면, 스웨덴,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수입하는 나라들의 관료와 수입업자들을 부패시키지 않는 나라로 꼽아졌다.
  - OECD에서 34개국이 서명을 해 2000년 2월부터는 외국관료들에게 수출업자가 뇌물을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18개 나라는 비준을 끝낸 상태이다.
- 국제투명성연구소(TI)의 체감부패지수(CPI)는 세계의 정치지도자들과 시민운동단체들이 관행적으로 익숙해온 부패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자명종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99개국 가운데 자기나라가 일반대중, 기업경영인, 은행 신용분석가들의 눈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심각한 부패 병을 앓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아야 하며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하는 사회적 암으로 이해해야 병을 치유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 CPI 지표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괴팅겐 대학의 통계학 교수인 Johann Graf Lambsdorff박사는, 이 CPI지표가 결코 세계의 모든 나라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국제기구의 조사를 이용한 통합지표(poll of polls)로서 서베이에 응답한 사람들의 체감에 기준 한 것이지 실제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 1999년도 CPI지표를 계산하는데 활용된 기초자료는 스위스의 IMD와 WEF, Economist의 ETI, 국제범죄희생자조사원(ICVS), 홍콩의 정치경제 리스크 자문회사(PERC), 월스트리트저널의 동유럽 경제 리뷰(CEER), 국제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된 지난 3년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부패연구는 학문적 연구대상일 뿐 아니라 정책적 구현 방안의 모색 또한 중요하다. 부패근절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부패 현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패에 연루된 집단의 저항을 이겨 입법화되어야 하며 법집행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력표 16]

## 1999년도 국제투명성연구소(TI)의 부패체감지수(CPI) 국가순위 및 지난 4년간 변화 추이

순위	1999년(99개국)		1998년(85개국)		1997년(52개국)		1996년(54개국)		1995년(41개국)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1	덴마크	10.0	덴마크	10.0	덴마크	9.94	뉴질랜드	9.43	네덜란드	9.55
2	핀란드	9.8	핀란드	9.6	핀란드	9.48	덴마크	9.33	덴마크	9.32
3	뉴질랜드	9.4	스웨덴	9.5	스웨덴	9.35	스웨덴	9.08	싱가폴	9.26
4	스웨덴	9.4	뉴질랜드	9.4	뉴질랜드	9.23	핀란드	9.05	핀란드	9.12
5	캐나다	9.2	아이슬란드	9.3	캐나다	9.10	캐나다	8.96	캐나다	8.87
6	아이슬란드	9.2	캐나다	9.2	네덜란드	9.03	노르웨이	8.87	스웨덴	8.87
7	싱가폴	9.1	싱가폴	9.1	노르웨이	8.92	싱가폴	8.80	호주	8.80
8	네덜란드	9.0	네덜란드	9.0	호주	8.86	스위스	8.76	스위스	8.76
9	노르웨이	8.9	노르웨이	9.0	싱가폴	8.66	네덜란드	8.71	네덜란드	8.69
10	스위스	8.9	스위스	8.9	룩셈부르크	8.61	호주	8.60	노르웨이	8.61
11	룩셈부르크	8.8	호주	8.7	스위스	8.61	아일랜드	8.45	아일랜드	8.57
12	호주	8.7	룩셈부르크	8.7	아일랜드	8.28	영국	8.44	영국	8.57
13	영국	8.6	영국	8.7	독일	8.23	독일	8.27	독일	8.14
14	독일	8.0	아일랜드	8.2	영국	8.22	이스라엘	7.71	칠레	7.94
15	홍콩	7.7	독일	7.9	이스라엘	7.97	미국	7.66	미국	7.79
16	아일랜드	7.7	홍콩	7.8	미국	7.61	오스트리아	7.59	오스트리아	7.13
17	오스트리아	7.6	오스트리아	7.5	오스트리아	7.61	일본	7.05	홍콩	7.12
18	미국	7.5	미국	7.5	홍콩	7.28	홍콩	7.01	프랑스	7.00
19	칠레	6.9	이스라엘	7.1	포르투갈	6.97	프랑스	6.96	벨기에/룩셈부르크	6.85
20	이스라엘	6.8	칠레	6.8	프랑스	6.66	벨기에	6.84	일본	6.72
21	포르투갈	6.7	프랑스	6.7	일본	6.57	칠레	6.80	남아공화국	5.62
22	프랑스	6.6	포르투갈	6.5	코스타리카	6.45	포르투갈	6.53	포르투갈	5.56
23	스페인	6.6	보츠와나	6.1	칠레	6.05	남아공화국	5.68	말레이시아	5.28
24	보츠와나	6.1	스페인	6.1	스페인	5.90	폴란드	5.57	아르헨티나	5.24
25	일본	6.0	일본	5.8	그리스	5.35	체코공화국	5.37	대만	5.08

자료 : 독일 괴팅겐대학교 국제투명성연구소(TI), 「1999년도 부패체감 지수」, 1999. 10. 26

[경쟁력표 16] (계속)

1999년(99개국)			1998년(85개국)		1997년(52개국)		1996년(54개국)		1995년(41개국)	
순위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26	슬로베니아	6.0	에스토니아	5.7	벨기에	5.25	말레이시아	5.32	스페인	4.35
27	에스토니아	5.7	코스타리카	5.6	체코공화국	5.20	<b>한국</b>	<b>5.02</b>	<b>한국</b>	<b>4.29</b>
28	대만	5.6	벨기에	5.4	헝가리	5.18	그리스	5.01	헝가리	4.12
29	벨지움	5.3	말레이시아	5.3	폴란드	5.08	대만	4.98	터어키	4.10
30	나미비아	5.3	나미비아	5.3	이탈리아	5.03	요르단	4.98	그리스	4.04
31	헝가리	5.2	대만	5.3	대만	5.02	헝가리	4.86	콜롬비아	3.44
32	코스타리카	5.1	남아공화국	5.2	말레이시아	5.01	스페인	4.31	멕시코	3.18
33	말레이시아	5.1	헝가리	5.0	남아공화국	4.95	터어키	3.54	이탈리아	2.99
34	남아공	5.0	마우리티우스	5.0	<b>한국</b>	<b>4.29</b>	이탈리아	3.42	태국	2.79
35	튀니지아	5.0	튀니지	5.0	헝가리	4.14	아르헨티나	3.41	인도	2.78
36	그리스	4.9	그리스	4.9	브라질	3.56	볼리비아	3.40	필리핀	2.77
37	마우리더우스	4.9	체코공화국	4.8	루마니아	3.44	태국	3.33	브라질	2.70
38	이탈리아	4.7	요르단	4.7	터어키	3.21	멕시코	3.30	베네주엘라	2.66
39	체코공화국	4.6	이탈리아	4.6	태국	3.06	에쿠아도르	3.19	파키스탄	2.25
40	페루	4.5	폴란드	4.6	필리핀	3.05	브라질	2.96	중국	2.16
41	조르단	4.4	페루	4.5	중국	2.88	이집트	2.84	인도네시아	1.94
42	우르과이	4.4	우루과이	4.3	아르헨티나	2.81	콜롬비아	2.73		
43	몽골	4.3	<b>한국</b>	<b>4.2</b>	베트남	2.79	우간다	2.71		
44	폴란드	4.2	짐바우에	4.2	베네주엘라	2.77	필리핀	2.69		
45	브라질	4.1	말라위	4.1	인도	2.75	인도네시아	2.65		
46	말라위	4.1	브라질	4.0	인도네시아	2.72	인도	2.63		
47	모로코	4.1	벨라루스	3.9	멕시코	2.66	러시아	2.58		
48	짐바브웨	4.1	슬로베키아	3.9	파키스탄	2.53	베네주엘라	2.50		
49	엘살바도르	3.9	자마이카	3.8	러시아	2.27	카메룬	2.46		
50	자메이카	3.8	모로코	3.7	콜롬비아	2.23	중국	2.43		
51	리투아니아	3.8	엘살바도르	3.6	볼리비아	2.05	방글라데시아	2.29		
52	<b>한국</b>	<b>3.8</b>	중국	3.5	나이지리아	1.76	케냐	2.21		
53	슬로박공화국	3.7	잠비아	3.5			파키스탄	1.00		
54	필리핀	3.6	터어키	3.4			나이지리아	0.69		

자료 : 독일 괴팅겐대학교 국제투명성연구소(II), 「1999년도 부패체감 지수」 1999. 10. 26

## 노동개혁 관련 IMD평가 People(인적자원)부문 경쟁력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인적자원 부문 종합순위	31위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싱가폴	노르웨이
인구구조 특성 분야	10위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폴	이탈리아
8.01 인구 (‘98)(백만명)	16위 46.4	중국 1,255.5	인도 971.2	미국 270.5	인도네시아 203.0	브라질 161.9
8.02 15세이하 인구비중 (‘97)(%)	(순위없음) 22.2	중국 25.3	홍콩 16.5	일본 15.3	싱가폴 21.6	이탈리아 15.1
8.03 65세이상 인구비중 (‘97)(%)	(순위없음) 6.6	중국 6.7	홍콩 11.7	일본 16.4	싱가폴 7.6	이탈리아 17.0
8.04 부양비율 (‘97)(%, 활동가능인구(15-64세)의 비경제활동인구(15세이하/64세이상) 부양률)	2위 40.4	홍콩 39.3	한국 40.4	싱가폴 41.2	대만 44.9	일본 46.4
8.05 기대수명 (‘92-‘96)(세, 평균기대수명)	34위 72.4	일본 80.0	아이슬랜드 79.3	캐나다 78.9	프랑스/홍콩 78.8	
경제인구 특성 분야	40위	미국	독일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8.06 경제활동인구 (‘98)(백만명, 취업자실업등록자 포함)	(순위없음) 21.57	미국 139.86	독일 39.78	핀란드 2.57	덴마크 2.88	노르웨이 2.34
8.07 경제활동 참가율 (‘98)(%(노동인구/전체인구))	(순위없음) 46.45	미국 51.69	독일 48.37	핀란드 49.81	덴마크 54.34	노르웨이 52.66
8.08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93-‘98)(%, 연평균증가율)	(순위없음) 1.73	미국 1.55	독일 0.10	핀란드 0.49	덴마크 -0.09	노르웨이 0.19
8.09 활동가능인구 비율 (‘97)(%, 활동가능인구/전체인구)	(순위없음) 71.20	미국 65.80	독일 67.60	핀란드 66.90	덴마크 66.70	노르웨이 64.00
8.10 활동가능인구 증가율 (‘94-‘97)(%, 연평균증가율)	(순위없음) 0.00	미국 0.15	독일 -0.52	핀란드 0.19	덴마크 -0.39	노르웨이 -0.58
8.11 여성 경제활동인구 (‘98)(%, 여성노동력/전체노동력)	31위 39.85	스웨덴 47.459	러리아 47.20	핀란드 46.73	중국 46.50	슬로베니아 46.38
8.12 숙련된 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	40위 5.222	필리핀 8.175	호주 7.884	독일 7.846	오스트리아 7.795	인도 7.770
8.13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이 없는 정도*	38위 4.278	미국 8.167	네덜란드 7.767	노르웨이 7.704	스페인 7.686	칠레 7.670
고용 분야	11위	중국	인도	홍콩	태국	미국
8.14 산업별 고용 비중	(순위없음)	중국	인도	홍콩	태국	미국
- 농업	13.2	49.9	60.1	0.0	43.7	3.0
- 제조업	26.9	23.7	18.1	16.4	14.2	23.8
- 서비스업	59.9	26.4	21.8	83.6	42.1	73.3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와 평균임

[경쟁력표 17] (계속)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8.15 총취업자 수 (‘98)(백만명)	16위 19.97	중국 699.57	인도 419.56	미국 132.28	인도네시아 87.05	브라질 68.04
8.16 취업률 (‘98)(%, 취업자/전체인구)	28위 43.00	중국 55.72	스위스 54.54	아이슬란드 54.25	태국 52.51	일본 52.18
8.17 고용전망 (‘97)(%, 고용증가활동가능인구증가)	27위 1.001	베네주엘라 1.075	아르헨티나 1.072	네덜란드 1.045	싱가폴 1.043	멕시코 1.041
8.18 고용증가율 (‘93-‘98)(%, 연평균 증가율)	(순위없음) 0.73	중국 3.04	인도 -	홍콩 2.59	태국 -0.01	미국 1.92
8.19 연간 평균 근로시간 (‘97)(시간)	7위 2,253	대만 2,330	홍콩 2,312	멕시코 2,302	터어키 2,263	칠레 2,256
<b>실업 분야</b>	<b>11위</b>	<b>룩셈불그</b>	<b>오스트리아</b>	<b>스위스</b>	<b>덴마크</b>	<b>일본</b>
8.20 실업율 (‘98)(%)	25위 7.40	대만 2.69	중국/아이슬란드/룩셈불그 3.10		싱가폴 3.20	
8.21 청년 실업율 (‘98)(%, 24세이하실업/전체실업)	9위 21.80	독일 12.50	오스트리아/덴마크 16.30		스웨덴 18.20	슬로베니아 18.70
<b>교육체계 및 구조 분야</b>	<b>37위</b>	<b>덴마크</b>	<b>핀란드</b>	<b>노르웨이</b>	<b>호주</b>	<b>벨기에</b>
8.22 교육체계가 경쟁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정도*	44위 2.963	핀란드 7.742	아일랜드 7.697	싱가폴 7.636	대만 6.978	스위스 6.860
8.23 중등학교 진학률 (‘96)(%)	2위 96	벨기에 98	한국/일본/스웨덴 96		노르웨이 94	
8.24 고등학교 진학률 (‘96)(%, 17-34세 인구의 교육기관에의 순 등록율)	6위 13.70	캐나다 16.90	미국 16.20	호주 14.90	핀란드 14.60	프랑스 13.90
8.25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정도*	47위 2.81	핀란드 8.13	아일랜드 7.94	싱가폴 7.58	이스라엘 7.32	호주 7.09
8.26 학업성적(8학년 학생들의 TIMSS 평균성적) - 수학 - 과학	(순위없음) 607 565	덴마크 502 478	핀란드 -	노르웨이 503 527	호주 530 545	벨기에 549 518
8.27 초등학생-교사 비율 (‘96)(명, 교사1인당 학생수)	44위 32.0	덴마크 10.0	헝가리/이탈리아/스웨덴 11.0		오스트리아 12.0	
8.28 중등학생-교사 비율 (‘96)(명, 교사1인당 학생수)	42위 24.60	이스라엘 6.30	벨기에 8.30	덴마크 8.88	베네주엘라 9.20	호주 9.40
8.29 공교육비 (‘95)(\$, 1인당)	28위 370.8	노르웨이 2,683.5	덴마크 2,643.0	스위스 2,461.2	스웨덴 2,030.3	룩셈불그 1,861.8
8.30 문맹율 (‘96)(%, 15세이상 성인 문맹율)	18위 2.0	아이슬란드/일본/룩셈불그/노르웨이/스위스(공동1위) 0.0				
8.31 신문구독 부수 (‘96)(부, 인구천명당 구독부수)	(순위없음) 394	덴마크 311	핀란드 455	노르웨이 593	호주 297	벨기에 160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경쟁력표 17] (계속)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8.32 국민들이 경제적 교양이 높은 정도*	26위 5.215	싱가폴 7.552	일본 7.197	핀란드/아이슬랜드 7.000		아일랜드 6.955
<b>삶의 질 분야</b>	<b>34위</b>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핀란드	캐나다
8.33 도시인구 비중 ('97)(%)	(순위없음) 83	아이슬랜드 92	노르웨이 74	뉴질랜드 86	핀란드 64	캐나다 77
8.34 소득분포 1(하위 2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96)(%)	(순위없음) 7.47	아이슬랜드 8.40	노르웨이 10.00	뉴질랜드 5.10	핀란드 10.00	캐나다 7.50
8.35 소득분포 2(상위 2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96)(%)	(순위없음) 39.29	아이슬랜드 36.30	노르웨이 35.30	뉴질랜드 44.70	핀란드 35.80	캐나다 39.30
8.36 당신의 나라에서 삶의 질이 높은 정도*	38위 4.168	오스트리아 9.590	스위스 9.302	캐나다 9.257	룩셈부르크 9.238	호주 9.188
8.37 주택보유율 ('94)(%)	- -	슬로베니아 89.8	헝가리 87.0	말레이시아 85.0	대만 82.5	베네주엘라 82.4
8.38 인간개발지수 ('98)(HDI가 평가한 경제/사회/교육지표의 합성)	26위 0.894	캐나다 0.960	프랑스 0.946	노르웨이/미국 0.943		핀란드 0.942
8.39 의료지원('97)(명) - 의사 1인당 인구 수 - 간호사 1인당 인구 수	34위 817 372	노르웨이 298 64	뉴질랜드 301 78	벨기에 267 108	핀란드 371 39	러시아 241 147
<b>근로태도 및 사회가치관 분야</b>	<b>34위</b>	아이슬랜드	싱가폴	홍콩	핀란드	터어키
8.40 작업현장에서 알콜과 약물남용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	15위 7.03	홍콩 8.32	터어키 8.30	싱가폴 8.21	덴마크 8.10	노르웨이 7.95
8.41 작업현장에서 괴롭힘과 폭행이 심각하지 않은 정도*	33위 6.87	핀란드 9.06	노르웨이 9.01	덴마크 8.99	오스트리아 8.96	아이슬랜드 8.63
8.42 당신 나라의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 충분히 유연하게 적응함*	38위 5.352	홍콩 8.246	브라질 8.140	싱가폴 8.060	아이슬랜드 8.000	대만 7.978
8.43 차별(인종, 성, 가족배경) 없이 기회균등이 부여되는 정도*	45위 3.963	아이슬랜드 8.813	터어키 8.078	베네주엘라 7.957	룩셈부르크 7.952	핀란드 7.645
8.44 사회가치(근면, 혁신)가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도*	4위 7.926	싱가폴 8.866	홍콩 8.702	핀란드 8.000	한국 7.926	아이슬랜드 7.875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 ● 경쟁력 제안 ●

# 총명한 사람 만드는 노동 및 교육개혁

### 첫째, 생산적 여성인력활용을 위해 여성인력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 여성노동력의 취업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노동력 비중은 39.85%로 세계 31위이고 세계 1위인 스웨덴의 47.49%에 비하면 우리의 잠재 노동력은 풍부하다.
- 경쟁력의 핵심으로서 여성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가사와 직업의 이중부담을 경감시킬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 정보화중심의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면 한국여성의 총명함과 바른 삶의 자세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의 정보화 재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자.

### 둘째, 신지식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정보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

- 청소년의 컴퓨터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평생학습 사회교육이 보편화되었는데도 청소년의 컴퓨터 학습은 대부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 청소년의 정보화 욕구에 뒤지는 학교시설과 컴맹 학부모가 문제이다.
- 열린교육, 평생학습, 자유실험으로 세계 청소년 정보화 선두그룹에 우리의 청소년도 동참하도록 지원하자.
- 청소년 정보문화 환경의 조성을 위해 교육투자 주체이며 교육상품의 수요자인 학부모가 학교 정규교육에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선도하자. 청소년의 자기개발 니즈에 맞는 효율적인 청소년 정보화 운동을 추진하자.

### 셋째,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자영업자와 직장인 대상 평생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해가면서도 우리는 높은 교육열에 비해 생산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체계는 미비하다.
- 인구 천명 당 컴퓨터대수는 150대로 세계 27위이며 세계1위인 미국의 499대에는 미치지 못하며, 인터넷 사이버교육도 아직 기술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경제현장에서 인터넷 탐색과 전자상거래와 같은 부가가치 창출과 직접 관련된 지식이 필요함에도 대학의 문이 닫혀 있다.
- 사이버교육을 대학의 열린 평생교육으로 만들면 개인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로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자.

### 넷째, 지식기반사회의 창의적 인간육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지식경쟁력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 핀란드와 아일랜드가 정보화교육을 세계에서 선도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경쟁력을 창출하려는 경제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는 정도는 세계44위이다.
- 수요자인 산업계의 요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학교육의 내용을 창조적 인간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사회지향 교육내용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키워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제도에 맞추어 강제적인 교육을 하다보니 프랑스 본국에서 불문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보다 우리 나라의 불문학과 재학생수가 더 많다.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

**다섯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실기교사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우리 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32명으로 세계 44위, 중등학교가 24.6명으로 세계 42위인데도 우리는 교사 수를 줄이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높은 교육열에 비해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은 너무 낙후되어 있다. 정교사 중심으로 임용구조를 편성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실기교사임용은 1.3%밖에 되지 않는다.
- 공교육이 활성화되어야 사교육비가 감소한다. 교단선진화를 위해 실기교사를 실습교사나 보조교사로 활용하면 과학실험, 컴퓨터교육, 영어학습에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 현행 교사임용에 관한 교육법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자.

**여섯째, 미래지식사회의 창조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주도 기초과학기술의 발전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 지식기반경제의 기초가 되는 지식생산 기초과학기술이 대학에서 찬밥이 되고 있다.
- 선진국 따라잡기와 외국학자 뒤따라가기에 바쁜 장비 운용법 습득과 복사연구로는 첨단지식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
- 국가출연연구소를 지식을 창조하는 기초과학과 첨단산업을 창조하는 원천기술의 산실로 육성하자.
- 기초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육성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지원체계를 구축하자.

**일곱째, 21세기 지식강국 실현을 위해 개방형 전문가 네트워크 보육사업을 개시할 것을 제안한다.**

- 20세기 산업사회의 전문가그룹은 학회, 협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폐쇄형 멤버십 그룹'이었다.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전문가 네트워크는 사회참여에 의한 '개방형 이용자그룹'이 된다.
- 전문가가 지식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없다.
- 1000개의 전문가망 운영으로 21세기 지식강국을 실현하자. 언론사가 나서 전문가망 운영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IP와 CP의 보육센터 운영사업을 하여 지식유통체제를 구축하자.

**여덟째, 새로운 핵심 수출전략 중점육성을 위해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 콘텐츠사업 개발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취약하고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백화점 나열식이지 효과적인 선도 충격(Major Push) 효과가 없다.
- 우수인력이 모여 끼를 발휘하고 수요를 창조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콘텐츠산업을 달려벌이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자.
- 멀티미디어, 게임, 시나리오작가들의 전문학교를 특수고등학교부터 특수대학원까지 특화하여 低부가 가치 하청산업의 치욕을 벗고 고부가가치 콘텐츠 디지털사업으로 육성하자.
- 전략산업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교육기반조성을 위해 고급인력이 몰리는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종합산업으로 육성하자.

**아홉째, 민족공동체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민족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우리는 민족 이기심이 지나쳐 해외동포를 해외 가용 네트워크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학교나 유대인과 같은 전세계 한민족 구심적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이다.
- 중국이나 이스라엘은 자국동포를 네트워크로 엮어 정치, 외교, 군사, 산업, 교육, 과학기술 전 분야를 지원해 주고 또한 활용한다.
- 글로벌리제이션과 디지털리제이션을 준비하여 인터넷 민족망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해외의 한민족을 돕는 해외시장 개척의 전진기지를 만들고 쌍방향적 유대를 강화하자.

**열째, 외국인에게도 편한 일터와 삶의 공간을 주기 위해 외국인타운을 건설 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은 외국인타운이 없는 세계에서 드문 나라 중의 하나이다.
- 외국인은 한국인의 배타적인 감정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 해방부터 지금까지 주둔해 온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한 아메리칸 타운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그들에게 편한 문화와 외국인타운건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 외국인을 고객으로 맞는 새로운 인식을 갖고 공무원이 중심이 된 국수주의적 태도를 이제는 버리자. 21세기 새천년을 우리 한반도부터 열어 새롭게 준비하자.